

국별 리포트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²	G D P	2,528억 달러 (2012년)
인구	84.1백만 명 (2012년)	1인당 GDP	3,006달러 (2012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6.06 (2012년 평균)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8,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말 시작된 중동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었고, 2012년 6월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가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집권 1년 만에 전국적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개입으로 강제 퇴진하였음.
- 아프리카 제 3위 천연가스 보유국(2011년 기준, 확인매장량 77조 ft³)으로 최근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최근 경제적으로는 2011년 초 시민혁명 이후 최근의 무르시 대통령 퇴진으로 계속되는 정국 혼란과 치안 공백의 여파로 관광수입 급감,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영업 중단 내지 철수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군부의 주도에 의한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무르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주의 세력과 과도정부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세력간의 충돌에 이어 과도정부의 무르시 지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사회 불안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시나이 반도는 2011년 무바라크 퇴진 이후 소요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무르시 정권의 퇴진 등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경제 회복에 지장

- 2010년 이집트 경제는 세계 경기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건설, 통신 부문의 성장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2009년 4.7%) 소폭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등으로 이어진 정국 혼란으로 전년 대비 급락한 1.8%를 기록하였음. 민주화 시위 이후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주요 산업인 제조업과 관광업이 극도로 침체되었음.
- 이후 2012년 6월 첫 민주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2012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3년 들어 군부의 개입에 의한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201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민심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 증대로 재정적자 규모 확대 전망

- 재정수지는 확대 재정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부양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경기부양 지속 등을 위한 지출 증가로 인해 8.1%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정국 혼란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으로 10%에 달했음.

- 2012년에 무르시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 최저임금을 75%나 인상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대비 소폭 확대된 1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과도정부 치하에서도 민심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3년 말 1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통화 약세 지속, 정치·사회 불안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2008~10년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불안정 등으로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였으며, 이는 높은 실업률과 맞물려 민주화 시위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2011년에는 민주화 시위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물가는 역시 두 자릿수인 10.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의 약세가 지속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혁명 이후 가장 낮은 7.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3년에는 미국의 2012년도 곡물 작황 부진으로 밀 수입 가격이 상승하여 세계 최대의 밀 수입국으로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무르시 정부의 전복에 따른 사회 불안으로 인한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약세의 지속 및 국제물가 상승 등으로 8.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2013 ^f
경제성장률	4.7	5.2	1.8	2.0	2.0
재정수지 / GDP	-6.6	-8.1	-10.0	-10.9	-13.0
소비자물가상승률	11.8	11.3	10.1	7.1	8.6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업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2년 기준 GDP의 부문별 비율은 관광, 수에즈 운하 운영, 기타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이 47.9%, 섬유,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 개발 등 일반 산업 부문이 37.4%, 면화 중심의 농업이 14.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대체로 취약하고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 중동 지역의 정치·사회 상황, 세계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가스가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

- 원유는 최대 유전 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고 신규 유전 개발이 부진함에 따라 일일 생산량이 2002년 75.1만 배럴에서 2012년 72.8만 배럴로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 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와 채굴에 성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 규모는 2002년 기준 1.7조 m³에서 2012년 기준 2조 m³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와 알제리에 이어 3위 규모임. 연간 생산량은 2002년 273억 m³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609억 m³를 기록하였음.

다. 정책성과

□ 무르시 정부,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실패

- 이집트 정부는 2008~10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약 54억 달러(300억 이집트파운드, GDP의 약 3%)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적극적 경기 부양에 힘입어 세계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2009년 4.7%, 2010년 5%를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 민주화 혁명에 의해 집권한 무르시 정부가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를 등한시하고 권력기반 확대에 급급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2년 2.0%로 하락하였음.
- 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실업률은 지난 2010년 9.0%에서 시민혁명 후인 2011년 12.0%로 급등한 뒤 2012년 12.7%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13.2%로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11년 2분기 말 114.1에서 2013년 1분기 말 130.3으로 급등하였으며, 이집트 파운드화의 미 달러당 환율도 2011년 2분기 말 5.958에서 2013년 1분기 말 6.801로 급등하였음.

□ 과도정부의 경제정책 입안과 시행에 시일 소요 예상

- 2011년 2월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후에 과도 정부가 구성되고 군사평의회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음.
- 2011~12년에 총선 및 대선 을 통해 출범한 무르시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실리적 자유주의 성향을 띄며, 경제적 평등성과 빈곤층 사회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정책수립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이슬람주의의 확산과 권력 기반의 강화에만 급급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청사진의 제시에 실패하였음.
- 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 명목 GDP의 10.9%로 급증하였으며 (무바라크 정권 붕괴 직전 해인 2010년에는 8.1%) 공공 채무도 GDP의 80%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현재 과도정부의 경제현안 가운데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자 축소라 하겠으나, 과도정부 역시 전력, 유류,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민심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추세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계속되어 재정적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됨.

3. 대외거래

□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재 등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는 적자를 지속하여 왔음. 2010년에는 수에즈 운하 운영수입 감소, 상품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1%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민주화 시위 발생으로 인한 관광업의 침체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2.4%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등의 수입량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 흑자폭도 각각 4.9% 및 30.0%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2.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2013년에도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의 흑자가 상품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양상이 지속되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개선된 GDP 대비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및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외환보유액 급감

- 외환보유액은 2011년에 정치,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외국인 투자의 감소 및 투자 회수, 외국인들의 이집트 국채 구매,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인해 동년 말 기준 136.6억 달러로 전년(323.5억 달러) 대비 급감하였음.
- 2012년 8월 신정부는 IMF에 4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11월 초에는 경제개혁안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24.1%나 감소한 103.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무르시 정권에 우호적인 카타르 정부가 2013년 초 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음에도 2013년 3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약 1.4개월분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88.2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무산될 경우 디폴트 발생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외채 비중의 상승으로 외채상환능력에 우려 제기

- 총외채잔액 규모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나, GDP의 지속적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6년 42.2%에서 2011년 18.2%까지 하락하였음. 그러나 무바라크 정권의 붕괴 후 경제상황이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대외차입이 증가, 2013년에는 그 비중이 다시 24.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D.S.R.은 최근 수년간 6~7%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1년 67.6%에서 2012년 103.9%로 급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12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환보유액 감소와 맞물려 외채상환능력에 우려를 낳고 있음.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e	2013 ^f
경 상 수 지	-3,349	-4,504	-5,484	-6,972	-5,233
경 상 수 지 / G D P	-1.8	-2.1	-2.4	-2.8	-2.1
상 품 수 지	-16,818	-20,120	-19,398	-25,516	-33,208
수 출	23,089	25,024	27,913	26,835	25,789
수 입	39,907	45,145	47,312	52,350	58,997
외 환 보 유 액	30,947	32,351	13,658	10,368	8,815
총 외 채 잔 액	47,194	48,706	42,185	53,351	62,048
총 외 채 잔 액 / G D P	25.1	22.7	18.2	21.1	24.8
D S R	6.4	6.1	7.4	6.4	7.0

자료: IMF,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반정부 시위로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이후 무르시 정부 출범

- 튀니지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혁명은 물가 상승 및 경제난으로 고통받던 이집트로 확대되어, 2011년 1월 25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정권과 시위대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던 군부가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자, 무바라크 대통령은 시위 발생 18일 만에 퇴진 의사를 밝혀 30년간의 장기집권 체제가 종식되었음.
- 2012년 6월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정의당 출신의 이슬람주의자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와 공군참모총장 출신 아흐메드 샤피크 후보 간의 결선 투표 결과, 무르시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이집트 최초의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된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하원 총선에서 이슬람 정당인 자유정의당과 알누르당이 압승하였음. 자유정의당은 전체 498석 중 235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알누르당은 121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였음. 2012년 1~2월에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이슬람 정당이 승리하였음.
- ※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결성된 이래 이슬람권 전체에 이슬람주의 운동을 전파해온 현대 이슬람주의 운동의 원류이자 이집트 최대의 종교 조직으로, 모든 이슬람 국가를 샤리아에 기반하여 통치되는 정교일치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6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무슬림형제단은 빈민층을 타깃으로 한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서민층의 지지를 받으며 대중적 기반을 구축,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후 대선에서 무르시 후보가 과반 득표로 당선된 것을 필두로 의회 선거와 국민투표 등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어 왔음.

□ 무르시 정부의 이슬람주의 헌법 강행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

- 무르시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근간으로 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헌법 제정을 야권과의 타협 없이 무리하게 추진, 세속주의자들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켰음.
- 새 정부는 제헌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이슬람주의자들의 주도로 제정된 헌법 승인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2년 12월 예정대로 강행해 통과시켰으나, 세속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은 새 헌법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해치며 소수파를 억압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 한편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2013년 2월 18일 의회 선거법 초안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무르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4월 22일부터 제헌의회 해산 후의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이집트 행정법원이 3월 6일 총선 취소 결정을 내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혼란에 빠졌음.

□ 2013년: 군부 개입으로 무르시 정권 붕괴, 과도정부 출범

- 무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6월 30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시민조직 타마로드(Tamarood, 아랍어로 '반란'이라는 뜻)가 주도한 50여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집결, 무르시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를 요구하였음. 이날 카이로 외에도 이집트 전역에서 1,400여만 명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됨.
-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는 7월 1일 무르시 정부에게 48시간 이내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7월 2일 대통령실이 연립 정부 구성과 헌법 개정을 제안하되, 조기 대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군부의 최후통첩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이에 압델 파타 엘 시시 국방장관은 7월 3일 오후 9시경(현지시각) 국영TV 생방송에서 무르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였으며, 현행 헌법의 효력의 정지 및 과도내각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였음. 임시 대통령에는 아들리 알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었음. 무르시는 카이로 인근의 공군기지로 옮겨져 현재 연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의 개입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군사 쿠데타라며 지지자들에게 저항을 촉구, 무르시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유혈 충돌이 거듭되자 과도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 무르시 지지 시위대의 유혈 진압을 감행하여 이집트 정국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재 시도는 성과 없음

- 미 국무부 장관, 유럽연합(EU) 중동 특사,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 카타르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8월 4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카이라트 엘 샤테르 무슬림형제단 부의장을 만나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석방과 무르시 지지 시위대 해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과도정부의 해산과 무르시의 권좌 복귀 외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지세력에게 투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사태의 해결이 조만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무바라크 퇴진 이후 악화된 치안, 무르시 퇴진으로 더욱 악화

- 1997년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룩소르(Luxor) 테러 사건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200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음.
 - 2005년 4월 카이로 중앙광장 자폭 테러(외국인 3명 부상), 2005년 7월 시나이 반도 샴엘셰이크 폭탄 테러(64명 사망), 2006년 시나이 반도 다합 폭탄 테러(19명 사망), 2009년 카이로 시장 폭탄 테러(1명 사망), 2011년 알렉산드리아 교회 폭탄 테러(21명 사망) 등이 계속 이어졌음.
-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2012년 2월 이집트산 천연가스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가스관이 테러 공격으로 폭발하는 등 10건 이상의 가스관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음.
 - 한편 시나이 반도에서는 2012년 8월에 무장괴한이 이집트 국경수비대를 공격하여 16명이 사망하였고, 11월 3일에도 무장괴한이 경찰관 및 보행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3명이 사망하는 등 2011년 초 무바라크 퇴진 이후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치안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인 2011년 11월 18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작된 '군부 퇴진' 요구 시위가 19일부터 유혈사태로 번져 3일 동안에 35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하였으며, 2012년 6월 대선 이후에도 10월에 타흐리르 광장에서 대통령 찬반세력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110명이 부상한 바 있음.
 - 무르시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살인, 고문 등 250여 건의 경찰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시위대 해산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

- 2013년 들어 사법체계 붕괴로 일반 시민들에 의한 사적 법 집행(린치)의 횡행, 무르시 정권 붕괴 후 무슬림형제단 지지세력과 세속주의 지지세력간의 폭력적 충돌이 계속되자, 과도정부는 무르시 지지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을 개시하여 8월 둘째 주에만 약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이로써 7월 3일 무르시 실각 이후 무르시 지지파와 반대파 시위대간의 충돌 및 군과 경찰의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8월 18일까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파간 충돌과 시위의 유혈 진압에 외부 세력 개입까지 더해져 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고조

- 무바라크 정권 붕괴 후 실시된 모든 선거에서 이슬람주의 정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인 데서 알 수 있듯이, 무슬림형제단은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자선사업으로 민심을 얻어 교육수준이 낮은 보수 성향의 지방 서민층을 지지기반으로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이 추종자들에게 폭력에 의한 저항을 계속 촉구하고 이에 대해 과도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일관할 경우, 현 상황은 군부와 손잡은 세속주의 세력과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이슬람주의 세력간의 전면 충돌로 비화하여 내전 상태로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마그레브 알-카에다 지부(AQMI) 등 북아프리카 일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게 이집트를 배경으로 테러 활동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지난 1월 알제리의 In Amenas 가스전을 습격하여 인질극을 벌였다가 70여명이 사망하는 참극을 빚은 AQMI는 북아프리카는 물론 사하라 이남의 니제르, 말리 등지에서도 테러 활동을 전개하며 이 지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음.
- AQMI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무슬림형제단 등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세속주의 세력 및 이집트군에 대한 테러활동을 전개하면, 최악의 경우 이집트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같은 고질적 내전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 국제 관계

□ 과도정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은 다소 복잡

-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정치단체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은 대부분 이집트 과도정부를 지지하며 경제적 원조를 약속하고 나섰다.
-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 과도정부에 과도한 재정적자 및 외환 부족 상황의 수습을 위한 12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자금지원을 약속하였음.
- 반면 카타르는 무르시 정권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현재 이집트 과도정부와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음.
- 전통적으로 이집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 역시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란은 군부의 무르시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르시 축출을 '부당한 행위'라 평가하며 무르시 지지 세력에 그의 복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였음.

□ 미국, 과도정부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입장

-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국가인 이집트의 정치적 안정은 최근 재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도 무르시를 배제한 채 임시정부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현재 이집트에 연간 13억 달러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 법령은 선출직 지도자가 쿠데타로 추방된 나라에는 원조를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집트 군부의 개입을 쿠데타로 규정할 경우 원조 제공을 중단해야 하므로, 미국 정부는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환보유고 급감 등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

- 무바라크 정권 붕괴 이래 외환보유고의 지속적 감소(2013년 3월 말 현재 약 1.4개월분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수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의 증가(2011년 67.6% → 2013년 127.0% 예상)로 인해 외채상환능력에 우려를 낳고 있음.
- Bloomberg의 이집트 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 spread)는 2012년 11월 30일 393bp에서 2013년 6월 24일 914bp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700bp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무르시 지지 시위대에 대한 과도정부의 유혈 진압이 격화되며 2013년 8월 16일 794bp로 다시 상승, 이집트의 국가부도위험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줌.

□ IMF와 세계은행에 구제금융 신청, 이후 협상 중단

- 1987년 및 1991년의 대외채무 리스케줄링 이후 외채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던 이집트 정부는 최근 일련의 정치 혼란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2011년 6월에 IMF로부터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으나, 군부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 이후 관광 및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이집트 정부는 2012년 1월 IMF와 32억 달러 규모의 단기자금 지원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세계은행에도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음. 6월 무르시 대통령의 당선 후 8월에 IMF를 대상으로 4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며, 11월 초에 신정부가 IMF 사절단과 협상을 재개하였음.
- 그러나 IMF는 7월 25일 이집트 과도정부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과도정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로부터 12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여 현재는 IMF와의 협상을 재개한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5년 4월 13일 (북한과는 1963년 8월 24일)
- **주요 협정:** 항공협정('79), 이중과세방지협정('92), 무역협정('96),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96), 사증면제협정('96), 원자력평화협정('01)
- **한-이집트간 교역 규모는 민주화 혁명 이후 위축**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 규모는 2011년 민주화 혁명 이후 정치적 불안정의 여파로 인해 2010년 31.8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도 2010년 13억 달러에서 2011년 10.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2년에는 교역규모가 26.1억 달러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10억 달러로 약간 줄어들었음.
 - 2012년 대 이집트 수출은 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을 중심으로 18억 달러,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8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그 부품, 선박,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등 산업 자본재와 중화학공업 제품,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고,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 석유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3월 말 기준 신규 법인 수 29건, 총투자금액 1.9억 달러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표 5 >

한·이집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1~7	주요 품목
수 출	1,727	1,807	944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691	802	723	석유제품, 천연가스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이집트는 2011년의 무바라크 정권 붕괴와 2013년 무르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정국 혼란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였고,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2012년 GDP의 10.9%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이 침체되고 외국인투자도 감소하면서 2012년 외환보유액이 2년 전의 32%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공식 실업률은 2010년 9.0%에서 2012년 12.7%로 상승하는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2012년 6월 첫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이 권력 기반 강화에만 주력하다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개입으로 실각한 이후 현재까지 무르시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유혈 충돌 및 과도정부의 무르시 지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서 사회 불안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D.S.R.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에도 (2012년 6.38%)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인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상승하는 등 단기간의 외채상환 전망도 악화된 상태임. 아울러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현재 이집트에 대한 신용등급을 거듭 하향조정하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